

비나밀크(Vinamilk), 한국 유제품 시장 진출

2020년 06월 18일, 하노이지사

□ 키워드 : 비나밀크, 유제품 시장

○ 비나밀크 개황

- 비나밀크(Vinamilk)는 1976년 설립되어 베트남에서 유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국영기업으로, '19년 니케이 아시아 리뷰를 통해 아시아 300대 기업 리스트 중 톱 50위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일반 우유, 분유, 요구르트, 연유, 두유, 아이스크림 등 200개가 넘는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고 베트남 현지 13개 공장 및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낙농장 네트워크 12개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미국, 캄보디아, 뉴질랜드, 폴란드 등에 현지 농장과 가공시설, 해외지사 및 협력사 운영을 통해 외국계 자본 및 기술을 흡수하고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 50여 개국에 자사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비나코리아를 통한 자사제품 정식 론칭을 통한 한국 유제품 시장 진출

- 2020.6.2. 베트남 유제품 기업인 비나밀크가 공식 유통 파트너 비나코리아(Vinakorea)를 통해 자사 제품을 한국에 정식 론칭 했다고 밝힘. 정식 론칭 제품으로는 아몬드, 호두, 팥 등의 원료로 만든 웨이브 제품군과 우유 베이스의 밀크티 등이며 론칭 후 한국의 온라인쇼핑 플랫폼(11번가, 이베이코리아(eBay Korea) 등)을 통해 유통을 시작하였으며 차후 편의점 체인(CU, GS25, 7-Eleven)에도 유통한다는 계획임
- 베트남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Vnexpress) 뉴스기사 보도에 따르면 6월초 웨이브 제품군, 밀크티, 두유 등 제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85컨테이너 분량(약 1.2백만달러)을 한국으로 수출했다고 밝혔음



* 사진 : 비나밀크 수출용(한국)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중인 상품

○ 시사점

- 베트남 유제품은 베트남 특유의 더운 날씨와 부족한 냉장냉동시설로 인한 보관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초고온 멸균을 거쳐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이 대부분이며 우유의 경우 멸균 처리한 팩 제품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비나밀크에서 파스퇴르사와 협업을 통해 베트남 고산지대에 위치한 달랏(Da Lat)에서 저온살균 우유를 생산·유통하고 있음. 다만, 생산수량이 현저히 적고 아직까지는 가공기술과 품질이 한국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다만 베트남산 유제품은 맛이 진하지 않으며 가격이 저렴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을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유제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반면 한국산 제품은 베트남 현지에서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고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건강을 위해 기꺼이 소비하는 현지 주요 소비층을 고려하여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베트남 유제품 시장을 공략해볼 필요가 있음

○ 출처

- 비나밀크 한국으로의 수출 관련 뉴스

<https://nld.com.vn/kinh-te/vinamilk-xuat-khau-85-container-san-pham-sua-sang-han-quoc-2020060820521645.htm>